

4월28일

죽은 자를 추모하고, 산 자를 위해 투쟁하라!
기억하라! 투쟁하라!

산재노동자의 날

올해부터 4.28.은 국가기념일인 <산재 노동자의 날> 입니다.

1993년 태국의 심슨 인형 공장에 불이 나 노동자 188명이 죽었습니다.
노동자들이 인형을 흠쳐 갈까봐 공장 문을 걸어 잠궜기 때문입니다.
이를 추모하며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지정한지 30년 만에
우리나라도 4.28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했습니다.
1988년부터 투쟁해온 결과입니다.

4.28 국가기념일 지정 국가
총 19개국

캐나다, 태국, 스페인, 대만, 포르투갈, 브라질,
도미니카공화국, 아르헨티나, 버뮤다, 페루, 파나마, 벨기에,
룩셈부르크, 호주, 영국, 아일랜드, 지브롤터, 방글라데시, 미국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

한 해에 **2,400명**

기업은 이윤과 노동자의 목숨값을 저울질 하는
산재사망 1위 산재공화국, 바로 한국입니다.

산재인정까지 평균 230일, 일터복귀는 첩첩산중
윤석열정권은 산재카르텔 사기극으로 몰아가며 개악,
이중으로 고통받는 15만 산재노동자

민주노총은
노동자가
위험한 작업을
멈출 권리,
노동자 참여가
보장되는 일터를
요구합니다.

1993. 태국 케이더 공장 화재 사진

살인적 로켓배송, 과로사 쿠팡노동자 (매년 520명 과로사)

상시 고용불안에 과로.. 쿠팡에 면죄부

이주아동으로 살다 중대재해로 사망한 청년노동자

지금까지 476명 목숨을 앗아간
현대중공업 조선소

씻물에 빠져 사망한 29세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산재사망 1위 건설 노동자

23명의 목숨 앗아간 배터리 폭발사고 아리셀 참사

생명안전 지키는 일터 민주주의 작업중지권, 노동자 참여 보장부터!

“ 폭염과 폭우에도,
고장난 기계설비에도,
안전조치가 안 되어 있어도
작업을 강요받는다면? ”



“ 위험한 작업을 거부했다고
노동자에게 징계와 손해배상을
남발한다면? ”

반복되는 산재사망을 줄이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 위험작업에 대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노동자가 산재예방에 참여, 노동자의 눈으로 안전을 감시하는 것!

안전사회를 위한
우리 모두의 요구,
작업중지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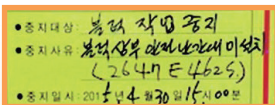
유해 화학물질이 누출되거나 폭발할 수 있는
화학공장, 철도·지하철 등 공공교통 노동자들이
위험 작업을 거부할 권리는 시민 안전과 직결됩니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사용 사례**

- 인체 유해 오존발생으로
작업중지한 서울교통공사노조



- 사고 재발 우려가 있는 공정 작업을
중지한 현대중공업노조



※ 각국의 작업중지권 규정

국가	노동자 작업중지권 관련 규정
캐나다	•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법에 위배되어도 작업거부권 부여 • 사업주의 일방적 작업재개 불가
영국	• 하청·특수고용 등 모든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 보장
호주,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 노동자 안전 대표에게 작업중지권 보장 • 하청·파견 등 모든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 보장

STOP!
**민주노총의
요구!**

- ✓ 노동조합 작업중지권 보장
- ✓ 작업중지 노동자를 해고, 징계하는 사업주 처벌
- ✓ 작업중지 기간 노동자 임금, 하청업체 손실보전 법제화
- ✓ 위험작업은 사전에 멈추고 완전한 개선조치 후 작업 재개
- ✓ 폭염, 폭우, 감정노동 등 기준 명시, 작업중지권 범위 확대

**윤석열 파면 이후, 광장의 민주주의를
일터 민주주의로 이어갑시다!**

민주노총

산재노동자 온라인추모관
4.28선언 참여하기



<https://0428.kctu.org>